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대사 :

운명 같이하는 미래 향해 큰걸음으로 전진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대사 구양옥정은 현재 중국—말레이시아 운명공동체 건설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랑국 지도자의 지휘와 인도 아래 계속해서 대대로 우호적인 친밀한 이웃, 손잡고 발전하는 진정한 파트너, 형제처럼 허물없는 친구, 평화를 공동 증진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어 랑국 관계의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양옥정은 중국—말레이시아 관계는 반세기가 넘게 풍파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세월이 흐를수록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랑국이 실무협력을 견지해 호혜상생하는 중국—말레이시아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16년 연속 말레이시아의 최대 무역파트너국이고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파트너이자 최대 수입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글로벌 주요 직접투자 목적지 국가중 하나로서 랑국의 신질생산력 협력은 빠르

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말레이시아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리(吉利)·체리(奇瑞) 등 자동차기업들은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설립, 랑국의 생산·공급망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우정은 인문 교류를 연결고리로 국민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중국—말레이시아 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수교 이래 랑국 국민은 손을 맞잡고 인도양 쓰나미, 문천지진,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응해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또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순환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며 아세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더욱 긴밀한 중국—아세안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번영하고 아름답고 우호적인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화넷

◀ 10 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찍은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의 트윈 타워(双塔).

/ 신화넷

중국과 월남, 운명공동체 관한 공동성명 발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또 량과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르영 8일 의 초청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은 2025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월남을 국빈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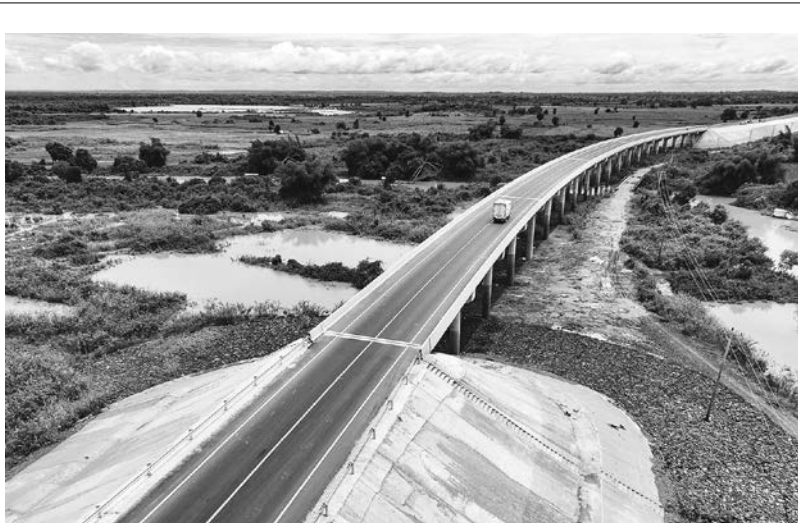
방문 기간 습근평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은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또 량 등 월남 지도자들과 회담 또는 회견을 진행했다.

쌍방은 우호적이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당과 국가 상황을 통

보했으며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와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 중국—월남 운명공동체 건설,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의견을 나누고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

4월 15일, 쌍방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략적 의의를 지니는 중국—월남 운명공동체를 다그쳐 구축할 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신화넷



2024년 7월 14일 캄보아 트벤크문성에서 찍은 71C호 국가도로. 상해건공그룹주식유한회사가 건설한 이 도로는 12일 트벤크문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캄보아 수상 훈 마넷, 공공공정운수부 대신 빈포니, 캄보아 주재 중국대사 왕 문빈 등이 개통식에 참석했다.

/ 신화넷

[국제시평]

파도 헤치며 전진하는 중국 대외무역의 ‘유연성’

며칠후면 세계 최대 적재량을 자랑하는 자동차 롤온롤오프선(滚装船) ‘심수호’가 감소성에서 첫 항해를 시작한다. 이 선박을 운영하는 중국 자동차기업 비야디는 올해 1분기에 롤온롤오프선을 리용해 해외로 2만 5,000대 이상의 신에너지 차량을 운송했으며 해외 루적 판매량은 20만 6,000대를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 해외수출은 세계에 ‘새로운’ 의미와 ‘로색’ 의미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중국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상품무역 수출입은 10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그중 수출은 6.9%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글로벌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무역 데이터가 예상을 초과했다.”며 “유연성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외부에서는 1분기 중국의 상품무역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1분기에 두 근무일이 줄어들어 수입 증가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1분기 중국의 산업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소비시장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면서 부품과 장비,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면 식용유 수입액은 12.1% 증가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증가 가능성은 여전히 크며 중국의 대시장은 항상 세계에는 큰 기회이다.

관세장벽 등 외부 도전에 직면한 중국의 대외무역 회복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중국인민대학 교수 왕효송은 이는 중국 경제의 기초가 강화하고 시장이 넓으며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 및 공급망이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 동안 무역보호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은 다각화된 시장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무역파트너의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위험 대응 능력도 강화했다.

올 1분기, 아세안은 계속해서 중국

의 최대 무역파트너 자리를 유지,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고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로 증가했다. 동시에 중국의 대 유럽연합 수출입은 1.4% 증가하여 거의 매분당 1,000만원 이상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간의 수출입은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대외무역의 51.1%를 차지했다.

미국정부의 과도한 관세 부과로 인한 방해와 충격에도 불구하고 1분기 중미 량자 무역은 여전히 4% 성장을 유지했다. 이는 중미 경제무역협력은 내재적 동력으로서 관세 장벽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중국의 대외무역은 ‘새로운’ 방향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했다. 1분기 중국 장비제조업 제품의 수출입은 7.6% 증가하여 대외무역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자주 브랜드 제품의 수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커피머신(咖啡机), 청소기부터 전기자동차, 산업용 로봇까지, 중국 제품의 기술 함량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바 ‘혁신’은 이미 중국 대외무역의 선명한 바탕색이 되었다.

또한 일련의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

이 시행되고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유연성을 강화했다. 작년 11월, 중국정부는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정책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다국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비즈니스 인력의 국경간 왕래 흡인 및 편의 등이 포함되었다. 올해 중국 정부사업보고에서도 ‘대외무역 발전의 안정’을 강조하며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안정적인 출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외자기기업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외자기기업의 루적 수출입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이다.

올해 1분기, 수출입 실적이 있는 외자기기업은 6.7만개를 초과, 최근 3년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자기기업의 수출입은 2조 9,900억원으로 4분기 연속 성장을 이루었다.

미국 과일 및 채소 기업 푸레주르 중국시장 총감독 왕나는 전 7회 수입 박람회 기간 회사는 말레이시아의 신

선 두리안 등 18종 과일 및 채소 신제품을 출시하여 전시품을 성공적으로 인기 상품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중국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함에 따라 그들의 통관 효율은 5년전의 3~5일에서 1~2일로 단축되었다고 표시했다.

4월 이후, 미국은 모든 무역파트너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여 글로벌 무역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험난한 ‘관세폭풍’에 직면하여 중국은 ‘한편으로는 대외무역 일체화를 가속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확고부동하게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제5회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와 제137회 광주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가 잇달아 열렸는데 참가 규모는 모두 신기록을 세웠다. 브라질 중국혁신경제연구원 주석 클라우디아 아누치는 개방된 중국은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을 주입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비바람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전진하고 있다. 보호주의는 출구가 없으며 개방과 협력만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음을 이제 세계는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 국제방송



15일, 제137회 광주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로봇봉사전시구에서 바이어들이 로봇 커피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다.

/ 신화넷

외교부

미국에 중국 사이버 공격 중단 촉구

4월 15일, 할빈공안국은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경기 정보시스템과 흥통강성의 주요 정보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참여한 미국 국가안전국 관계자들을 현상 수배하는 통고문을 발표했다.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당일 “중국 측은 미국정부의 우와 같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림검은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미국정부는 경기 정보시스템과 흥통강성내 핵심 정보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중국의 핵심 정보시설, 국방, 금융, 사회, 생산 및 시민 개인정보 안

전에 심각한 해를 끼쳤는데 그 성격은 매우 악랄하다.”고 비판했다.

림검은 “중국측은 중국의 핵심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참여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측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측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고 중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중단하며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을 중단할 것을 미국측에 촉구한다.”고 표시했다.

또 “중국은 자국의 사이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방송

윤석열 내란 혐의 첫 재판

공소사실 혐의 전면 부인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14일,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윤석열은 재판에 출석하여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연합뉴스 등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측과 윤석열측은 각각 공판문을 통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진술했다.

한국 검찰측은 피고자 위험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력 행사를 금지시키고 정당제도를 제거할 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표했다. 검찰측은 또 2024년 12월 3일 실시된 비상계엄

령을 ‘국가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진술에서 내란 혐의를 반박했다. 그는 이번처럼 반폭력적이고 국회의 해체 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21일에 이 사건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6일, 한국 검찰청 비상계엄특검수사본부는 ‘내란 발동 혐의’로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인물이다. 4월 4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포,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다.

/ 신화넷

한국 대선후보 지지률, 이재명 48%로 1위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월 14일 한국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중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이 48.8%의 지지률로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후보가 10.9%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번 조사보다 5.4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6%이다.

정당 지지률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률은 46.7%로 이전 조사

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률은 33.1%로 2.6포인트 하락했다. 광당의 지지률 격차는 3주 연속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리얼미터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는 지적했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국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탄핵안을 통과,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다. 한국정부는 6월 3일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인민넷 - 조문판